

2013

논술 & 에세이 가이드북

Writing &

Essay

Guidebook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2013
논술 & 에세이
가이드북



논술안내

chapter. 01

Ⅰ 서강대학교 논술문제 어떻게 나오나요?
통합논술 기본 성격과 출제 방침

1. 통합논술의 기본 성격과 의미 08

- 1) 기본 성격
- 2) 교육적 의미

2. 통합논술의 출제 방침 09

- 1) 출제의 기본 방향
- 2) 문제 유형
- 3) 출제의 주안점

chapter. 02

Ⅱ 논술 준비는 이렇게 하면 된다.
통합논술 준비 방법

1. 인문·사회계열 통합논술 준비 11

- 1) 평소 학습 혹은 교과서 가로지르기
- 2) 읽기 단계
- 3) 문제해결(토론) 단계
- 4) 쓰기 단계

2. 자연계열 통합논술 준비 14

- 1) 수리과학 통합형
- 2) 수리 계산형, 수리 응용형
- 3) 자료 분석형, 과제 해결형

chapter.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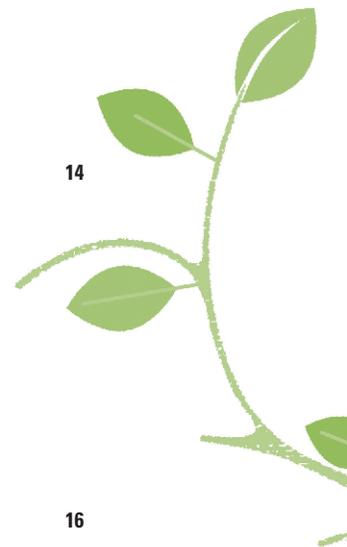
Ⅲ 채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논술 채점원칙 및 과락기준

1. 채점원칙 16

2. 과락기준 16



contents



chapter. 04

IV

모의논술로 실전에 대비해 보자.

2013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17
1) 모의 논술문제	
2) 해설	
2. 자연계열	25
1) 모의 논술문제	
2) 해설	

Essay 안내(알바트로스 인재전형 - 인문사회계열)

chapter. 05

V

Essay란 무엇인가?

의미 및 구성

1. 목표 및 주안점	31
2. 교육적 의미	31
3. 영어 Essay의 구성	31

chapter. 06

VI

모의 Essay로 실전에 대비해 보자.

2013학년도 모의 Essay 문제 및 해설

1. 모의 Essay 문제	33
2. 해설	35

부록

1. 서강대 논술 이것이 궁금하다!	37
작년도 입시결과 분석에 기초한 Q&A	
2. 논술 달인을 위한 10계명	39





greeting



입시정보가 부족한 수험생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서강대학교 논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본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수험생 및 논술지도 선생님들께

서강대학교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논술로 선발하는 모집인원이 여러 입학전형 중 가장 많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의 궁금증은 2013학년도 입시에서 논술이 어떻게 출제되고, 어떤 방법으로 논술을 준비하는게 효과적인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서강대학교 논술유형에 미리 접해보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시2차 일반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541명으로 전체 정원대비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시에서 논술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논술 반영비율은 우선선발과 일반선발이 각각 70%, 50%로 논술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제문항이 2문제로 한 문제 한 문제를 신중하게 읽고 논술을 작성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책자에서는 서강대학교 논술에 대한 모든 것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한 자료를 총 망라하여 준비했습니다. 서강대학교 통합논술의 기본 성격과 출제 방침, 모의논술 문제, 논술 준비방법, 논술채점기준 등 평소 많은 수험생들이 알고 싶어 하였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013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이 본 책자를 가이드로 삼아 합격에 한발 더 다가가기를 기원드립니다.

서강대학교 입학처장 이옥연

I. 서강대학교 논술문제 어떻게 나오나요?

통합논술의 기본 성격과 출제 방침

chapter

01

1. 통합논술의 기본 성격과 의미

1) 기본 성격

- 논술 시험은 대학에서 수준 높은 학문을 연구하고 도야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제도이다. 즉 논술 시험은 어떤 사물이나 사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진지하게 관찰하고 통찰하여, 그 특징을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찾아내 거기서 일반적 원리와 법칙을 유추해내는 통찰력, 판단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인 것이다.
-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학습하고 암기한 지식의 총량보다는,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정보들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즉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통섭에 기반한 비판적 사고력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논술은 영역별 논제보다는, 지식의 제반 영역을 통섭하는 통합논술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 기본적으로 논증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논술은 다양한 영역에서 논거를 활용해야 하므로 배타적 교과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통합 교과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통합성, 총체성, 연계성, 다양성, 입체성 등을 염두에 두고 역동적으로 성찰하고 토론하면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해결 능력을 창의적으로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교육적 의미

- 통합 논술은 단지 대학 입시를 위한 평가 제도에서 그치지 않고,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과정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통합 논술에 필요한 능력들, 이를테면 맥락적 읽기 능력, 분석적이고 통합적인 사고 능력,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 합리적인 토론 능력, 논리적 추론 능력, 논리적 구성 능력, 이론과 실천 혹은 논리와 현상 사이의 합리적인 연계 능력, 능동적이고 유창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은 일반적으로 공교육 과정에서 매우 요긴한 기본적 학습 능력에 해당한다.
- 이와 같은 교육적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통합 논술의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설정해 볼 수 있다.

통합 논술 교육의 목표

통합적 통찰 능력 및 인식 능력의 함양

통합적 비판 능력과 판단 능력 고양

전문인으로서 적합한 통합적 탐구 능력과 통합적 적성 개발

올바른 가치관 정립

정보화 시대의 통합적 정보 취득 역량 함양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표현 능력 개발

2. 통합논술의 출제 방침

1) 출제의 기본 방향

-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본개념과 기본원리를 토대로 인간, 사회 및 자연의 문제를 논리적·종합적으로 사고하고, 그 사고결과를 문제 해결에 창의적으로 응용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 단편적인 지식 암기를 지양하고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즉, 단순한 지식의 나열보다는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 대학에서의 수준높은 수학능력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즉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 논리적 분석 능력과 적용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 인문·사회계와 자연계로 크게 나누어 논술 시험을 실시한다. 자연계는 수리 창의력 측정을 강조한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출제진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 과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최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2) 문제 유형

● 계열별 출제 관련분야

계열	학부	관련분야
인문·사회	문학부, 사회과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인문/사회과학 중심에 자연과학적 성격도 가미한 제시문과 논제
자연	자연과학부, 공학부	자연과학/창의력 관련

● 반영비율

계열	문항 1	문항 2
인문·사회	40%	60%
자연	50%	50%

● 문항별 답안분량(띄어쓰기 포함) 및 고사시간

계열	문항 1	문항 2	고사시간
인문·사회	800자 ~ 1,000자	1,300자 ~ 1,500자	120분
자연	제한없음	제한없음	120분

3) 출제의 주안점

- 논제 및 제시문의 통합적 구성: 통합교과적 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시문 역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및 경제 경영 관련 문헌들을 망라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제시문 구성 시 문장으로 이루어진 제시문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도표나 통계 등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 통합적 수학능력 측정: 특정 과목이나 특정 단원의 단편적 지식을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까지 여러 교과목에서 갈고닦은 수학능력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자연계의 경우 수리 창의력 강조: 자연계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익힌 수학 및 과학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리 창의력 문제를 출제한다.

Ⅱ. 논술 준비는 이렇게 하면 된다.

통합논술 준비 방법

chapter

02

1. 인문·사회계열 통합논술 준비

1) 평소 학습 혹은 교과서 가로지르기

- 평소에 다양한 교과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주제적으로 읽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고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 즉 새로운 단원을 읽고 핵심 개념이나 주제를 파악, 전체의 논리적 연관성을 이해,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 토론 과정을 통해 대안들을 심화하고, 나름대로 정리하여 글로 써 보거나 말로 발표하는 활동 모두가 논술 준비의 일환이요, 나아가 자기 발전과 세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활동이므로 이를 분명히 인식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와 같은 공통의 학습 활동에 보태어, 개인적으로 평소에 꾸준히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읽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거기에 자신의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보태어 글로 자기표현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무엇보다 교과서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각 교과서의 기본 개념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개념들의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논술 준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통합 논술은 실제로 이런 기본 개념과 그 맥락의 이해와 새로운 적용과 관련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교과서에는 많은 문제의식들이 담겨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단서들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실마리로 하여 현실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확대 심화하는 평소의 학습 과정이야말로 논술 준비뿐 아니라 내신 및 수능 준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교과서의 기본 개념들을 숙지하고 그 맥락을 고려하면서 현실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궁리한다는 것은 곧 비판적 사고와 통한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지 기존에 찾아진 답을 수동적으로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롭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궁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존의 방안을 비판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탐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기존의 견해와 새로운 견해, 나의 의견과 남의 의견 사이에 폭넓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할 수 있을 것이다.

2) 읽기 단계

- 무엇보다 글(문제와 제시문)을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중심 소재와 뒷받침 소재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 소재를 대하는 필자의 태도 혹은 그것과 관련한 필자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제를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까지 사려 깊게 성찰하면서 읽는 연습이 요구된다.
- 제시문을 읽을 때 각 단락의 연관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이나 원리를 설명하는 단락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 단락, 대안이나 전망을 제시하는 단락이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어떤 사태나 현상의 원인을 규명한 단락, 그 결과를 도출한 단락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질을 나타낸 단락, 현상을 드러낸 단락, 사실을 적은 단락, 주장을 드러낸 단락 등 각 제시문의 단락은 여러 양상을 보인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단락과 단락 사이, 제시문과 제시문 사이의 연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논술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출제자들이 그 연관관계를 심분 고려하면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 연관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은 곧 정확한 출제의도 파악과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시문에 들어 있는 사실들을 면밀하게 읽어냈다면,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사실들 혹은 주장들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과학적 맥락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하면서 제시문에 들어 있는 사실이나 주장을 비교, 대조하는 가운데 구조적이면서도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렇게 제시문의 소재와 주제, 필자의 처지와 태도, 구성과 맥락 등을 다채롭게 고려하면서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글을 읽는다면, 그 어떤 글이라도 이해하지 못할 게 없을 것이다. 논술의 제시문은 전문적인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니며, 해독되지 않는 난해한 글들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다. 수능 시험의 언어 영역이나 논술 시험의 제시문이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이라면, 그 난해성을 원망하기 이전에 우선 자신의 글 읽기 습관을 반성해 보고 얼마나 그 기본에 충실하게 읽는가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비판적 읽기를 수행해야 한다. 단지 수동적으로 글에 들어 있는 무엇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글 읽기를 통해 얻은 새로운 앎을 내 안에 들어 있는 여러 지혜와 상상력의 보물창고와 결합하여 새로운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지혜와 정보를 창출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무릇 읽기의 핵심임을 명심하자.

3) 문제해결(토론) 단계

- 읽은 것을 바탕으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토론이나 궁리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토론이나 대화적 논쟁은 비판적, 합리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데 요긴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토론을 할 때는 우선 논점(쟁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토론의 대상인 논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 진단한 다음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해야 한다. 설득(논증) 과정의 설득력(객관적 타당성)을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사실·소견 논거)가 타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이나 관련된 논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평소에 구체적인 사례를 일반화하거나, 일반론을 구체화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맺을 때 분명하고 핵심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과정은 남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근거가 타당하고 논리적인 반론을 제기해야 하며, 논점이 분명한 반론을 설득력 있게 제기해야 한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업 시간 중에, 혹은 친구들과끼리 구체적으로 토론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논술 연습을 위해서 아쉬운 대로 내 안에서 복수의 '나들의' 토론을 유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안에 복수의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나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각각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대화를 내적으로 수행한다면 심화된 논술 능력을 함양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된다. 예컨대 '사형제도 폐지' 라는 논점에 대해 첫 번째 나는 찬성, 두 번째 나는 반대 입장을 취한 다음 각 입장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전개해 보는 방식이다. 등하교 시간을 이용하여 매일 논점 하나씩 취하여 그와 같은 내적 토론을 수행한다면 논술 시험에서는 물론 이후의 전문적인 자기 일에서도 큰 성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주체적이면서도 대화적인 공리가 중요한 것이다.

4) 쓰기 단계

- 정확히 읽고, 창의적인 대안을 궁리한 다음에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구술시험이라면 말로, 논술 시험이라면 글로 표현하여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논술문 작성을 위해 먼저 효율적인 개요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개요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분량까지 잘 계산된 것이면 더 좋을 것이다.
- 실제 글쓰기를 하기 전에 분량과 내용 조직을 고려하면서 우선 눈으로 한 번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약 15초 정도 원고지를 따라 눈으로 쓰다보면 논리적 전개나 분량의 조절 등 여러 면에서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 본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는 결론을 맺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긴 논술문(1,000자 이상)의 경우라면 시작과 끝에서 자신의 주장을 아울러 밝히는 양괄식 구성이 유리할 수 있다. 짧은 논술문의 경우는 좀 탄력적일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글(단락, 문장)의 구성력(통일성·일관성·완결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노파심에서 덧붙이는 소리지만 논술은 글재주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다. 수사보다는 알맹이이고, 알맹이의 논리적 전개가 중요하다. 또한, 분량을 꼭 지켜야 한다. 분량을 어겼을 경우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제 시험을 위해서 시간 배분을 잘 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2. 자연계열 통합논술 준비

1) 수리과학 통합형

- 수리과학 통합형 문제는 수리과학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거나, 실생활 속에 자연과학적 현상과 원리가 배경인 제시문으로부터 주어진 질문들을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수학적 논리로 서술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임.
- 수리과학 통합형 문제는 제시문 속에 항상 문제를 풀어내는데 필요한 단서가 들어있으므로, 질문의 핵심이 되는 대상을 제시문 속에서 찾는 것이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임.
- 수리과학 통합형 논술의 논제는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소재들이 바탕이 되는데, 물리나 화학 등의 과학 교과과정 안에 스며있는 수리 논리적 개념들도 수리과학 통합형 논술의 논제가 됨.
- 수리과학 통합형 논술은 수학 및 과학 교과과정의 이해에 기반을 둔 기초지식 및 창의력을 바탕으로 수험생이 어떠한 사고 과정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였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명료한 논리를 갖추어 객관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어떤 정해진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답안이 가능한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수험생 나름의 답안이 객관적 일관성과 논리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훌륭한 답이 됨. 제시문 속에는 항상 문제를 풀어내는데 필요한 단서가 들어있으므로, 질문의 핵심이 되는 대상을 제시문 속에서 찾아서 이에 대한 수리 과학적 원리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을 이끌어내야 함.
- 수리과학 통합형 논술은 어느 정도 언어 영역의 논리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속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표현, 올바른 문장 전개 등 글쓰기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함.

2) 수리 계산형, 수리 응용형

- 수리 계산형, 수리 응용형 논술은 제시문에서 주어진 질문들을 수리적인 계산과 논리를 통하여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는 유형의 문제로서 수리과학 통합형 문제와 더불어 자연계 논술에서 가장 빈번히 출제되는 유형임.
- 수리 계산형, 수리 응용형 논술은 제시문의 내용과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수리적 계산으로 옮기고 답을 올바르게 구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술유형임.
- 수리 계산형, 수리 응용형 논술은 수험생에게 반드시 수학적 언어와 논리로서 대답하기를 요구하므로 구체적인 답변 없이 어설픈 논술로 둘러대며 넘어가서는 안 됨.
- 수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며, 때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대상의 원리나 구체적인 풀이과정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음.
- 답안이 완성되면 수리 계산과정에서 오류가 없고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바를 빠짐없이 엄밀하게 답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3) 자료 분석형, 과제 해결형

- 자료 분석형 문제는 자료가 되는 표와 이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진 문제로 나타나는데, 자료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동반한 수리적 사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주제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결론 내리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유형임.
-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제 자체를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내용의 논술문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어진 자료와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단계별로 주제 분석을 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함.
- 문제에서 주어진 게임의 규칙, 통계 자료 또는 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미래의 행동을 어떻게 결정할지 보여줘야 하는 과제 해결형 문제들이 주로 이 유형에 속함.
- 자료로부터 너무 비약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모호한 문장으로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답안이 신뢰를 얻는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통한 논리적인 서술이 반드시 필요함.
- 과제 해결형 문제의 경우 어떻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과정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논술의 목적임. 주어진 문제에 대한 어떤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답안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즉 수험생들의 정형화된 풀이 방법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자의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생각이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가를 평가하고자 함.



Ⅲ. 채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논술 채점원칙 및 과락기준

chapter

03

1. 채점원칙

다음과 같은 논술 평가 척도를 적용하여 채점한다.

- 제시문 읽기를 통한 문제 발견 및 해석 능력
-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 통합적 문제와 관련한 의견의 조정 및 추론 능력
-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성 및 기술 능력

2. 과락기준

-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은 백지 답안 또는 답안분량이 현저히 미달되는 답안
⇒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자수를 준수하도록 합시다!
-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답안
⇒ 글자수를 채워도 내용이 문제와 상관없다면 인정 안돼요!
- 문항 <1번>과 <2번>의 답안을 바꿔 작성한 경우나 이와 유사한 경우
⇒ 아무리 긴장되더라도 논술답안을 바꿔쓰면 안되지요!
- 모든 문항을 한 종류의 동일한 필기구로 작성하지 않은 답안
⇒ 연필, 볼펜, 펜 등 검정색 계통의 필기구는 모두 허용되지만, 한가지 필기구로 1,2번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문제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식이 있는 경우 또는 수험생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식이 들어있는 경우
⇒ 답안이외의 내용은 일체 허용되지 않아요. 특히 이모티콘 절대 쓰지 않습니다!
예)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꼭 서강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 ~하다. _ _;;
- 끝났다! ㅋㅋㅋ

IV. 모의논술로 실전에 대비해 보자.

2013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및 해설

chapter

04

1. 인문·사회계열

1) 모의 논술문제

[문항 1]

다음 제시문 [가][나]의 공통 논제를 밝히고 그 논지를 비교 대조하라.(800~1,000자, 40% 배점)

가

자본주의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인간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가운데 시도했던 것을 정신적·사회적 및 정치적으로 계속해갔다. 경제적 자유가 그러한 발전의 기반이 되었으며 중산계급은 그 투사였다. ...중략... 개인은 근면과 지식과 용기와 절약 및 행운이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경제적 부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 기대되었다. 따라서 성공의 기회라든가 실패할 위험은 모두 자기 자신의 것이 되었으며, 또한 각자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치열한 경제적 투쟁에서 죽거나 상처를 입는 일도 자기 자신의 책임이 되었다. 봉건제도하에서는 각 개인이 그 생활을 확장시킬 수 있는 범위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는 개인, 특히 중산계급의 구성원은—수많은 제한에도 불구하고—자기 스스로의 업적과 활동을 통해서 성공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하나의 목표를 발견하여 그것을 향하여 진력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때때로 가졌다. 그는 자기 자신에 의존하여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면서,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미신과 무시무시한 미신을 포기할 줄 알게 되었다. 사람은 점차 자연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 ...중략...

자본주의는 단지 인간을 전통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를 증대시켜 능동적이고 비판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자아를 성장시키는 데 막대한 공헌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가 점점 발전해가는 자유의 과정에 미친 하나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은 개인을 더 한층 고립시킴으로써 무의미함과 무력함을 안겨주었다.

여기서 우선 다루어져야 할 요소는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인 특징 중의 하나인 개인적인 활동의 원리이다. 모든 인간이 정연하고 뚜렷한 사회조직 속에서 어떤 고정된 위치를 지니고 있던 중세의 봉건제도와는 반대로, 자본주의 경제하에서는, 개인은 완전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서게 되었다. 그가 무엇을 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일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것이 되었다. 이 원리가 개성화의 과정을 촉진시킨 것은 명백한 일이며, 근대문화의 명예로운 측면을 이루는 데 중요한 항목의 하나로 항상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으로부터의 자유가 점점 진전하여 갈 때, 이 원리는 개인 간의 모든 유대를 끊음으로써 개인은 동료로부터 고립되는 분리된 자가 되었다. …중략…

근대인은 자기의 이익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사실상 그의 생활을 자기의 것이 아닌 목적에 바치는 모순에 빠져 있었다. …중략… 근대인이 행동할 때 그 관심사가 된 자아는 사회적 자아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개인에 대해 밖으로부터 예상되는 역할에 의해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는 사회에 놓인 인간의 객관적인 사회적 기능을 단순히 주관적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근대적 이기주의는 참된 자아의 욕구불만에 입각한 탐욕이며, 그 대상은 사회적 자아이다. 근대인의 자아의 극단적인 주장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자아는 약화되어 전체적 자아의 일부분—지성과 의지력—으로 축소되고, 퍼스널리티 전체의 다른 모든 부분을 제외하는 결과를 자아내고 있다. …중략… 인간은 스스로의 세계를 건설했다. 공장과 가옥을 세우고, 자동차와 의복을 만들고, 곡물과 과일을 재배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만든 생산물과는 소원해졌다. 그는 실제로 이미 그가 세운 세계의 주인이 아니다. 반대로 인간이 만든 세계가 인간의 주인이 되었다. 그 주인 앞에 인간은 머리를 숙이고 될 수 있는 한 아양을 떨며 숙이고 있다. 자기 손으로 한 일이 자기의 신이 된 것이다. 그는 자기 이익에 의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구체적인 능력을 가진 그의 전체적인 자아는 그의 손으로 만든 그 기계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지만, 일찍이 선조들이 신에 대해 의식적으로 느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무의미하고 무력한 존재라고 강하게 느낀다. …중략…

개인의 고독과 무력한 감정을 보통 사람은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 그것은 매일같이 판에 박은 듯한 활동, 개인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발견하는 확신과 칭찬, 사업에서의 성공, 모든 종류의 기분 전환, 즐거움, 교제, 유람 등에 의해 은폐된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휘파람을 불어도 빛은 나타나지 않는다. 고독과 공포와 흥미는 여전히 남는다.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그것을 참을 수는 없다. 그는 ‘……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무거운 짐을 견디어 나갈 수가 없다. 그들은 소극적인 자유에서 적극적인 자유로 전진할 수 없는 한, 결국 자유로부터 도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에리히 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나

후기근대의 성과주체는 의무적인 일에 매달리지 않는다. 복종, 법, 의무 이행이 아니라 자유, 쾌락, 선호가 그의 원칙이다. 그가 노동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쾌락의 획득이다. 그의 노동은 향유적 노동이다. 그는 타자의 명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는 자기 자신의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명령하는 타자의 부정성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타자로부터의 자유가 해방적이지만 한 것은 아니다. 자유에서 새로운 강제가 발생한다는데 자유의 변증법이 있다. 타자의 자유는 나르시시즘적 자기 관계로 전도되며, 이는 오늘날 성과주체가 겪는 많은 심리적 장애의 원인이 된다.

타자와의 관계가 사라지면서 보상의 위기가 찾아온다. 인정으로서의 보상은 타자 또는 제3자라는 심금을 전제한다. 스스로를 보상하거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칸트에게는 신이 보상의 심금이다. 신은 도덕적 업적을 보상하고 인정해준다. 보상 구조에 이상이 생기면서 성과주체는 점점 더 많은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빠진다. 따라서 타자 관계의 부재는 보상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초월적 조건인 것이다. 오늘날의 생산관계도 보상의 위기를 불러온 또 다른 원인이다. 완결된 일의 결과로서 최종적이고 결정적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오늘날의 생산관계는 완결을 가로막고 있다.

사람들은 열려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해나간다. 시작과 끝이 있는 완결의 형식은 사라져버렸다. …중략…

객관적으로 유효한,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식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조건이 주체를 자기 자신의 나르시시적 반복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런 까닭에 주체는 하나의 형태, 안정적인 자아상, 확고한 성격에 이르지 못한다. 즉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느낌은 자아 감정의 고양을 위해 의식적으로 “회피”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느낌 자체가 결코 찾아오지 않는 것이다. 나르시시적 주체는 완결에 이르러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결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를 잃고 열려 있는 공간 속에 흩어져버린다. 완결된 형식의 부재는 무엇보다 경제적 조건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개방성과 미완결성은 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략…

과다한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후기근대의 성과주체는 강력한 유대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우울증은 모든 유대를 끊어버린다. 슬픔은 대상과의 강력한 리비도적 유대 관계에서 나오며 무엇보다도 그 점에서 우울증과 구별된다. 반면 우울증은 대상이 없고 따라서 지향점도 없다. 우울증은 멜랑콜리와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 멜랑콜리는 어떤 상실의 체험 뒤에 온다. 따라서 멜랑콜리는 그나마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부재하는 자와의 부정적 관계가 멜랑콜리의 조건인 것이다. 하지만 우울증은 모든 관계와 유대에서 잘려나간 상태이다. 우울증에는 아무런 중력도 없다.

슬픔은 강렬한 리비도가 투여된 대상의 상실과 함께 일어난다. 슬퍼하는 자는 전적으로 사랑하는 타자와 함께 있는 것이다. 후기근대의 자아는 리비도적 에너지의 대부분을 자기 자신에게 사용한다. 그렇게 쓰고 남은 리비도는 계속 늘어나는 연락처와 일시적 관계에 배분되고 흩어진다. 매우 약한 리비도를 타자에게서 빼내어 새로운 대상에 투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이다. 길고 고통스러운 “애도 작업”은 불필요하다. 소셜 네트워크 속의 “친구들”은 마치 상품처럼 전시된 자아에게 주의를 선사함으로써 자아 감정을 높여주는 소비자의 구실을 할 따름이다. …중략…

우울증에 자주 선행하여 나타나는 소진(消盡)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힘이 빠져가는 주권적 개인의 증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자기 착취의 병리학적 결과이다. 개성을 확장하고 변형하고 새로 발명해야 한다는 명령이 그 이면에서 우울증을 초래하는데, 그러한 명령의 원천은 정체성과 관련된 상품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정체성을 자주 바꾸면 바꿀수록 생산은 더욱 큰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산업적 규율사회가 변함없는 정체성에 의존했다면, 성과주의적 후기산업사회는 생산의 증대를 위해 유연한 개인을 필요로 한다. …중략…

문제는 개인 사이의 경쟁 자체가 아니고 경쟁의 자기관계적 성격이다. 그로 인해 경쟁은 절대적 경쟁으로 참여화된다. 즉 성과주체는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끝없이 자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강박,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추월해야 한다는 파괴적 강박 속에 빠지는 것이다. 자유를 가장한 이러한 자기 강요는 파국으로 끝날 뿐이다. …중략…

이상 자아에 비하면 현실의 자아는 온통 자책할 거리밖에 없는 낙오자로 나타난다. 자아는 자기 자신과 전쟁을 치른다. 모든 외적 강제에서 해방되었다고 믿는 긍정성의 사회는 파괴적 자기 강제의 뒷에 걸려든다. 21세기의 대표 질병인 소진증후군이나 우울증 같은 심리 질환들은 모든 자학적 특징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고 자기를 착취한다. 타자에게서 오는 폭력이 사라지는 대신 스스로 만들어낸 폭력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러한 폭력은 그 희생자가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

- 한병철, 『피로사회』

[문항 2]

다음 제시문 [다]와 연관된 [라]의 새로운 해석의 설득력에 대해 논의하고, [문항 1]의 제시문 [가] [나]와 다음 제시문 [마] [바]에서 추출한 논거를 활용하여, [사]의 '준명'의 대답을 추론하라. (1,300~1,500자, 60% 배점)

다

프로메테우스에 관해서는 네 개의 전설이 있다. 첫 번째 전설에 따르면 그는 인간을 위해 신들을 배반했기 때문에 코카서스 산에 쇠사슬로 단단히 묶였고, 신들은 독수리를 보내어 자꾸만 다시 자라나는 그의 간을 뜯어먹게 했다고 한다. 두 번째 전설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는 쪼아대는 부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점점 바위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고, 결국 바위와 하나가 되었다. 세 번째 전설에 따르면 수천 년이 지나 그의 배신행위는 잊혀졌다. 신들도 잊었고, 독수리도 잊었고, 그 자신도 잊었다. 네 번째 전설에 따르면 근거 없이 되어버린 일에 모두 지쳤다. 신들도 지쳤고, 독수리도 지쳤고, 상처도 지쳐서 스스로 아물었다. 남은 것은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바위산뿐이었다. 전설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 한다. 전설은 진실의 근거에서 온 것이어야 하므로 다시 설명할 수 없는 것에서 끝나야 한다.

- 카프카, 『프로메테우스』

라

나는 또 하나의 재해석을 통해 이 프로메테우스 전설을 내적 영혼의 장면으로, 즉 오늘날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하며 자기 자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성과주체의 심리적 기구에 관한 묘사로 파악하고자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과 함께 노동도 가져다주었다. 성과주체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지만 실은 프로메테우스처럼 묶여 있다. 끝없이 다시 자라나는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먹는 독수리는 성과주체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제2의 자아(Alter Ego)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프로메테우스와 독수리의 관계는 자기착취의 관계인 셈이다. 스스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간의 고통이란 피곤이라고 들 한다. 따라서 자기 착취의 주체인 프로메테우스는 엄청난 피곤에 빠지고 말 것이다.

- 한병철, 『피로사회』

마

우리는 재물이나 쾌락 등과 같은 것들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비어 있는 항아리가 아니다. 행복만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물음을 무시한다. 삶에는 행복하게 느끼는 것 이상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원하고, 우리의 신념이 정확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정서가 사실에 근거하기를 원하고, 착각 속에 살지 않고 현실에 보다 정확하게 연결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은 보다 확실하게 쾌락이나 다른 경험들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실과의 실제적 연결이다. 외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보다 큰 행복에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현실에 연결되기를 원한다.

행복이란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왜 행복의 역할이 그렇게 과장되는가? 고대하던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가 갖는 축복의 느낌과 같이 어떤 구체적인 순간에 그들은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홀로 산책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런 순간의 특징은 충만함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고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또 다른 행복은 전체로서 나의 삶에 대한 만족이다. 행복은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완전하고, 지속적이고, 깊고 충만한 만족이다. 이런 행복 개념에 의하면, 다른 어떤 것도 행복한 삶보다 우월할 수 없다. 물론 이런 행복 개념은 우리

가 왜 행복하기를 원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중략...

배운다는 것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관념들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점에서는 모든 시대가 변화의 시대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변화가 너무나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역사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역동적 시대 즉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변화를 대하는 태도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변화를 바라지 않아 무엇이든 현재와 달리 뒀어 거부하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오래된 것은 모두 거부하고 없애려고 하는 태도이다. 혁명가들은 악뿐만 아니라 오래된 좋은 것들도 파괴한다. 이들 중간쯤에는 과거의 좋은 가치들이나 선을 유지하고 새로운 발견이나 통찰을 사용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과거와 현재의 역동적 통합을 원한다. 이들은 현재가 과거로부터 생겨났고 미래도 또한 질서 있고 안정적인 변화 과정을 거쳐 오기를 원한다.

배운 것을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들과 협동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문명사는 인간이 보다 광범위한 관계에 연계되어 있다는 장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개념은 가족에서 혈연적 소집단으로, 소집단에서 부족으로, 부족에서 국가로, 그리고 국가에서 세계 질서로 발전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교육은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 내면세계를 풍요롭게 하는 것, 많은 것들에 감사하고 감상할 줄 아는 것을 함의한다. 또한 배운 사람은 보다 큰 질서의 한 부분인 거대한 영적(靈的) 질서에 민감할 줄 아는 사람이다.

-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 교과서

바

이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커다란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그는 분명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모든 사람은 하늘이 바라는 만큼, 또는 자기가 해낼 수 있는 만큼만 행운을 얻을 것이며,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시샘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의 복지를 위해서나 그의 어려운 처지를 돕기 위해 어떤 기여를 하려는 마음이 없을 뿐이다! 그러한 사유방식이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된다면 틀림없이 인류는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누구나 동정심과 호의에 대해 떠들고 그때그때 그것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속이고 인간의 권리를 팔거나 침해하는 경우보다 훨씬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비록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그러한 준칙에 따라 잘 유지될 수 있을지라도, 그러한 원칙이 자연법칙으로서 모든 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바라는 일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결심한 의지는 자기 자신과 대립하는데, 다른 사람의 사랑과 동정심을 필요로 하면서도, 자기의 의지에서 생겨난[자기가 만든] 자연법칙 때문에 소망하는 모든 희망과 도움 자체를 빼앗기는[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 이마누엘 칸트, 『도덕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논기』

사



-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2) 해설

[문항 1]

- ◎ **질문의 요구** 질문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다. 제시문 [가] [나]의 공통 논제를 밝히는 것과, 그 공통 논제에 대한 논지의 유사성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대조하라는 것이 그 둘이다. 공통 논제를 밝힐 때는 그것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야 한다. 비교 대조할 때는 그 기반과 맥락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좋다.

- ◎ **제시문의 구성** 제시문은 교과서에서도 다루어지는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와 최근 화제작인 한병철의 『피로사회』에서 가져왔다.

- ◎ **제시문 읽기** [가]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면서 근대적 개인은 전통적 속박(자연이나 신으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획득했으나, 역으로 자아가 축소되는 결과를 빚어, 역설적으로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한다. 개인은 자유로운 선택과 자기 책임 하에 일을 하지만, 그 자유의 과정에서 개인들은 타인과의 유대가 단절됨에 따라 고립되고 무력해지며 자기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된다. 이러한 근대적 자유의 부정적 증후들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은폐되지만, “고독과 공포와 혼미”에서 근대적 개인이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런 자유의 양면성으로 인해 근대적 개인들은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나]에서 후기근대의 개인(성과주체)들은 “복종, 법, 의무 이행이 아니라 자유, 쾌락, 선호”라는 원칙으로 행동한다. 그는 명령하는 타자의 부정성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의 경영자가 되어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그 자유가 해방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타자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타인과의 유대가 끊어지면서 자기 노동에 대한 보상의 심급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아를 상실하기에 이른다. 게다가 후기근대의 생산관계의 비완결성과 자기 욕망의 무제한성으로 인해 자기 일에 대한 만족감을 지니기 어렵다. 그래서 후기근대의 성과주체들은 자기에 의한 자기 착취를 부지불식간에 행하며, 그런 과정에서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자유를 가장한 자기 강요로 인해 성과주체들은 절대적 경쟁 속에서 자기를 소진하고 파국에 이르기에도 하기에 매우 위험하다.

- ◎ **공통 논제 파악** 두 제시문을 읽어본 결과 공통적으로 다루는 논제는 ‘자유 양면성’ 혹은 ‘자유 곤혹(딜레마)’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근대와 후기근대의 개인들이 겪는 자유의 곤혹스런 양면성을 다루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 ◎ **유사점 비교** 자유의 곤혹스런 양면성을 다룬 두 제시문의 유사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자유는 외형적으로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다. 이 자유의 양면성으로 인해 개인은 곤혹스러워진다. 둘째, 자유의 획득 혹은 발전을 통해 개성화 개별화가 촉진된 것은 좋으나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유대가 단절되어 고립되고 분리되고 소외된 개인이 되고 만다. 셋째, 그 결과 개인의 자아정체성이나 만족감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 **차이점 대조** 두 제시문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가]는 규율사회인 근대적 개인 주체의 자유의 양면성을 다룬 것이고, [나]는 후기근대의 성과주체의 자유의 양면성과 역설을 다룬 것이다. 둘째, 생산관계의 차이에서 [가]는 조직과 개인의 관계가 문제되는 반면 [나]에서는 자기와 자기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제삼고 있다. 셋째, 자유의 양면성으로 인한 부정성의 정도 면에서 [가]보다는 [나]가 훨씬 심각한 진술을 하고 있다. [가]에서 소외된 개인은 “고독과 공포와 혼미”에 사로잡히는 정도이지만, [나]에서 성과주체는 소진증후군이나 우울증에 빠져 파국에 이를 수 있을 정도라고 경고한다.

[문항 2]

- **질문의 요구** 질문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다. 제시문 [다]와 연관된 [라]의 새로운 해석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지를 판단하라는 요구와, 제시문 [가] [나] [마] [바]에서 추출한 논거를 활용하여 [사]의 ‘준명’의 대답을 추론하라는 요구이다.

- **제시문의 구성** 제시문은 잘 알려진 그리스 신화 프로메테우스 테마를 재해석한 카프카의 짧은 단편([다])과 그것을 후기근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라], 고등학교 교과서의 행복과 관련한 단원([마]),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을 위한 기초 논기』에서 가져온 부분([바]) 및 교과서 학습활동에서 가져온 [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발문의 요구대로 <문항 1>의 제시문 [가] [나]도 여기에 포함된다.

- **제시문 읽기** [다]는 유럽의 문화 전통에서 프로메테우스 테마가 다채롭게 변형 지속되고 있음을 알리는 글이다. 인간을 위해 신들을 배반한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응징설, 고통으로 인한 퇴행적 위축설, 망각설, 피로설 등을 카프카는 흥미롭게 엮었다. 여기에 [라]는 새로운 해석을 보탠다. 현대의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 독수리를 ‘제2의 자아’로 파악하여 프로메테우스와 독수리의 관계를 “자기착취의 관계”로 재해석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철학』 교과서에서 따온 [마]는 행복의 내외적 조건에 대해 설명한다. 행복은 타인이나 현실과 구체적인 연관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내면세계를 풍부히 해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즉 내적으로는 내면세계의 심화를 외적으로는 관계의 확충을 통해 충분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에서는 독자적 유아론에 가까운 자연법칙을 언급하면서 그 한계를 논한다. 그 자연법칙을 따르면 서로가 서로를 침해하지 않고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랑과 동정심”이라는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한다. [사]에서 준명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유 있게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다. 그런 준명에게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 **[라]의 새로운 해석의 설득력** 단일하고 강고한 이성을 강조하던 이성중심주의를 넘어서 심리학에서 언급하는 제2의 자아나 무의식 등은 인간의 복합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돕는다. 인간은 결코 단일한 자아로 살 수 없다. 파우스트 테마 등이 보여주는 이중자아 모티프를 보더라도 인간은 얼마든지 제2, 제3의 자아와 겨루면서 나름의 자기정체성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먹는 독수리를 제2의 자아로 상징하고, 프로메테우스와 독수리의 관계를 “자기착취”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는 것은 [나]에 제시된 후기근대의 생산관계나 성과주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뚜렷한 논리를 확보하게 된다.

◎ **[사]의 '준명'의 대답 추론** [사]에서 준명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유 있게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다. 그런 준명에게 친구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 대답 과정에서 [가] [나] [마] [바]에서 추출한 논거를 활용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준명의 생각을 평면적으로 지속시키면 곤란하고, 네 제시문들의 논거를 통해 반성적 사고를 보여주어야 한다. [가] [나] [바]에는 준명이 자신의 생각 안에 단순하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들어 있다. 자유롭게 노력하지만 자신이 만든 세계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역으로 그 세계의 소외된 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가]), 타인과의 유대를 상실한 채 자기 중심으로 절대적 경쟁 상태 혹은 자기착취 상태에 이르면 심각한 자기소진이나 파국에 이를 수 있다는 점([나]),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이라는 가치를 배제하면 결국 자기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점([바]) 등이 그 이유이다. 이에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마]에서 언급하는 행복 추구 방안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외적으로는 타인과 현실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내적으로는 내면을 풍요롭게 하여 깊은 충만감에 이를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명은 결국 자신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반성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더 깊게 하고, 경제적 풍요만이 아닌 내면적 풍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여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계급적 문제를 비롯한 기회 불평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열심히 노력해도 사회경제적인 구조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대답은 주어진 제시문의 논거를 직접 활용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논술의 정당한 방향이 되기 어려움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 자연계열

1) 모의 논술문제

[문항 1]

제시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라.(글자 수 제한 없음, 50% 배점)

한국대학교는 교수 100명의 직접투표를 통해 총장 선거를 실시했다. 총장후보자는 A, B, C, D 네 사람이고, 유권자인 교수 100명은 투표용지에 각 후보자의 순위를 적는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투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득표수(명)	1위	2위	3위	4위
35	A	B	C	D
1	A	B	D	C
0	A	C	B	D
1	A	C	D	B
0	A	D	B	C
1	A	D	C	B
0	B	A	C	D
0	B	A	D	C
0	B	C	A	D
1	B	C	D	A
0	B	D	A	C
10	B	D	C	A
0	C	A	B	D
0	C	A	D	B
2	C	B	A	D
25	C	B	D	A
0	C	D	A	B
3	C	D	B	A
0	D	A	B	C
0	D	A	C	B
0	D	B	A	C
1	D	B	C	A
0	D	C	A	B
20	D	C	B	A

투표결과 4명의 후보들은 각자가 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학교의 이사회는 토론 끝에 후보 D를 탈락시킨 후 교수 20명으로 총장 후보 추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후보 A, B, C 를 각자 선호하는 순서대로 적는 2차 투표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2차 투표 결과 단순히 1순위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총장으로 당선된다고 룰을 정했고, 개표결과 20명의 위원들 중 11명이 A보다 B를 선호하였고, 14명이 B보다 C를 선호하였으며, 12명이 C보다 A를 선호하였고, 또한 아래 표에서 개표결과 발생 가능한 6가지 결과의 득표수를 나타내는 $f_1, f_2, f_3, f_4, f_5, f_6$ 중 단 하나도 0이 아니었다고 공표하였다.

득표수(명)	1위	2위	3위
f_1	A	B	C
f_2	A	C	B
f_3	B	A	C
f_4	B	C	A
f_5	C	A	B
f_6	C	B	A

- 【1-1】 1차 투표결과 세 명의 후보 A, B, C 모두 각자 자신이 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때 그 이유가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받아들여진 이유를 설명하시오.
- 【1-2】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 D가 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나름의 논리로 설명하시오.
- 【1-3】 2차 투표 후 위원회가 공표한 내용만으로 총장 당선자가 결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총장 당선자는 누구인가?

[문항 2]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라.(글자 수 제한 없음, 50% 배점)

[가] $a > 0$ 가 양의 실수이고 n 이 자연수일 때 $a^{-n} = \frac{1}{a^n}$, $a^0 = 1$ 으로 정의함으로써 양의 실수의 거듭제곱을 정수로 확장시킬 수 있으며, m 이 2이상의 자연수이고 n 이 자연수일 때 $a^{n/m} = \sqrt[m]{a^n}$ 으로 정의하고 r 이 양의 유리수 일 때 $a^{-r} = \frac{1}{a^r}$ 로 정의함으로써 양의 실수 a 의 거듭제곱을 유리수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 이때 자연수 지수에서의 지수법칙은 유리수 지수에서까지 성립함을 쉽게 보일 수 있다. 즉 $a > 0$ 인 실수와 임의의 유리수 p, q 에 대하여 $a^p a^q = a^{p+q}$ 그리고 $(a^p)^q = a^{pq}$ 가 성립한다.

[나] 양수의 거듭제곱은 임의의 실수 지수로 확장될 수 있다. 즉 $a > 0$ 와 x 가 임의의 실수일 때 a^x 을 유리수 지수의 확장되면서 실수에서도 지수법칙이 성립하도록 정의할 수 있다. 실제로, 위로 유계인 단조증가 수열이 반드시 극한을 갖는다는 실수의 기본성질,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무한수열 $\{a_n\}$ 과 어떤 양수 M 이 있어,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a_n \leq a_{n+1}$ 이고 $a_n < M$ 이면, 수열 $\{a_n\}$ 은 적당한 실수에 수렴하는 성질을 사용하여 a^x 를 정의할 수 있다.

[다] 우선 $a > 1, x > 0$ 이라 가정하고, $x = x_0 \cdot x_1 x_2 \cdots x_k \cdots$ 을 x 의 무한소수 표기라고 하자. 이때 $x_0, x_1, \cdots, x_k, \cdots$ 은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이다. p_n 을 x 를 소수 n 번째 자리까지 표기한 유리수, 즉 $p_n = x_0 \cdot x_1 x_2 \cdots x_n$ 라 정의하면 수열 $\{p_n\}$ 은 $p_1 \leq p_2 \leq \cdots \leq p_n \leq \cdots$ 을 만족하면서 (즉, 단조증가하면서) 주어진 양의 실수 x 로 수렴한다. 즉 수열 $\{a^{p_n}\}$ 은 단조증가이며 위로 유계이므로 극한이 존재한다. 이제 $a^x = \lim a^{p_n}$ 으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0 < a < 1, x > 0$ 인 경우는 $a = 1/b$ 로 놓고, $b > 1$ 임을 이용하여 위의 방법으로 정의된 b^x 에 대하여 $a^x = 1/b^x$ 라 정의한다. 끝으로 $x < 0$ 인 경우 $a^x = 1/a^{-x}$ 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된 함수 $f(x) = a^x$ 는 실수 위에서 연속이다. 즉, 임의의 실수 x_0 에 대하여 $\lim_{x \rightarrow x_0} a^x = a^{x_0}$ 가 성립한다.

[라] 함수 $f(x) = 2^x$ 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며 $f(1) = 2, f(2) = 4$ 이다. 따라서 중간값의 정리에 의하여 $2^w = 3$ 을 만족하는 w 가 개구간 $(1, 2)$ 에 존재하며 또한 $f(x) = 2^x$ 는 증가함수이므로 이러한 w 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우리는 $2^w = 3$ 을 만족하는 유일한 w 를 $\log_2 3$ 으로 나타낸다. 이와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log_2 5$ 와 $\log_2 15$ 도 정의된다.

[2-1] a 가 양의 실수이고 p, q 가 양의 유리수일 때, 자연수 지수에서의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가]에서 언급한 $a^p a^q = a^{p+q}$ 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2-2] [나]의 밑줄 친 성질을 참조하여 $\sqrt{2}, \sqrt{2+\sqrt{2}}, \sqrt{2+\sqrt{2+\sqrt{2}}}, \dots$ 으로 정의된 무한수열이 수렴함을 보이고, 이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2-3]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양의 실수 x, y 에 대하여 $2^x 2^y = 2^{x+y}$ 가 성립함을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라]에서 정의된 $\log_2 3, \log_2 5, \log_2 15$ 에 대하여 $\log_2 15 = \log_2 3 + \log_2 5$ 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2) 해설

[문항 1]

[1-1]

1순위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기로 할 때, 38표로 1순위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 A가 총장에 당선되어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가 나오는 방식과 금메달의 숫자로만 올림픽 출전국가의 순위를 매기는 방식과 같다.

1순위에게 4점, 2순위에게 3점, 3순위에게 2점, 4순위에게 1점을 주어 그 점수를 합하는 방법을 택할 때, B는 총점 284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281점으로 2위를 차지한 후보 C를 누르고 총장에 당선된다. 이는 A는 4점, B는 3점, C는 2점, D는 1점으로 간주하여 성적을 산출하는 대학교 학점 평가 방식과 같다.

후보끼리 일대일로 선호도를 비교할 때, $C:A = 62:38$, $C:B = 52:48$, $C:D = 67:33$ 로 후보 C가 당선된다. 이는 출전 팀들이 일대일로 풀리그를 벌여서 우승자를 결정짓는 운동경기에 비교할 수 있다.

[1-2]

1위 최소득표 후보를 차례로 탈락시키고 마지막으로 남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을 고려해보자. 투표 시 처음부터 지지하는 후보를 1순위, 1순위 후보가 탈락할 때 지지하는 후보를 2순위, 2순위 후보가 탈락할 때 지지하는 후보를 3순위 등으로 기표하면 단 한번 투표로 최종 당선자를 선출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경우 1순위 지지자가 11명뿐인 후보 B가 가장 먼저 탈락하고, B가 없는 상황에서 투표결과를 상정하면 후보 C가 이어서 탈락하고 최종 선발은 남은 후보 A와 D 중 다수의 표를 얻은 후보 D가 당선된다.

[1-3]

주어진 식, $f_1 + f_2 + f_3 + f_4 + f_5 + f_6 = 20$, $f_1, f_2, f_3, f_4, f_5, f_6 \geq 1$ 와
 $f_3 + f_4 + f_6 = 11$, $f_2 + f_5 + f_6 = 14$, $f_1 + f_2 + f_3 = 12$ 로부터
 $f_1 + f_2 + f_5 = 9$, $f_1 + f_3 + f_4 = 6$, $f_4 + f_5 + f_6 = 8$ 을 얻는다.

이중 가장 간단한 식 $f_1 + f_3 + f_4 = 6$ 으로부터 $2 \leq f_3 + f_4 \leq 5$ 가 성립하므로 $f_3 + f_4 = 2, 3, 4, 5$ 를 각각 대입해서 $f_1, f_2, f_3, f_4, f_5, f_6$ 를 구하도록 한다.

- (i) $f_3 + f_4 = 2$ 인 경우 $f_1 = 4, f_3 = 1, f_4 = 1$ 이고 $f_1 + f_2 + f_3 = 12$ 로부터 $f_2 = 7$ 을 얻으나 이는 식 $f_1 + f_2 + f_5 = 9$ 을 만족할 수 없다.
- (ii) $f_3 + f_4 = 3$ 인 경우 $f_1 = 3, f_3 = 1, f_4 = 2$ 또는 $f_1 = 3, f_3 = 2, f_4 = 1$ 가 성립하나 이는 $f_1 + f_2 + f_3 = 12$ 와 $f_1 + f_2 + f_5 = 9$ 를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
- (iii) $f_3 + f_4 = 4$ 인 경우 $f_3 + f_4 + f_6 = 11$ 으로부터 $f_6 = 7$ 을 얻으나 이는 $f_4 + f_5 + f_6 = 8$ 를 만족할 수 없다.
- (iv) $f_3 + f_4 = 5$ 인 경우 $f_1 = 1$ 이고 $f_3 + f_4 + f_6 = 11$ 으로부터 $f_6 = 6$ 을 얻고 $f_4 + f_5 + f_6 = 8$ 로부터 $f_4 = 1, f_5 = 1$ 을 얻고 따라서 $f_3 = 4$ 이고 $f_1 + f_2 + f_3 = 12$ 로부터 $f_2 = 7$ 을 얻는다. 이렇게 얻어진 $(f_1, f_2, f_3, f_4, f_5, f_6) = (1, 7, 4, 1, 1, 6)$ 은 모든 식을 만족한다.

따라서 위원회가 공표한 내용만으로 총장 당선자가 유일하게 결정되며, 당선자는 8명에게서 1위 득표를 얻은 후보 A이다.

[문항 2]

[2-1]

$p = \frac{n}{m}, q = \frac{i}{j}$ (i, j, m, n 은 자연수)라 놓고, 자연수 지수에서의 지수법칙을 사용하면 $a^p a^q = a^{\frac{n}{m}} a^{\frac{i}{j}} = \sqrt[m]{a^n} \sqrt[j]{a^i} = \sqrt[m]{a^{nj}} \sqrt[j]{a^{mi}} = \sqrt[mj]{a^{nj} a^{mi}} = \sqrt[mj]{a^{nj+mi}}$ 이고, 정의에 의하여 $\sqrt[mj]{a^{nj+mi}} = a^{\frac{nj+mi}{mj}} = a^{\frac{n}{m} + \frac{i}{j}} = a^{p+q}$ 이다. 따라서 $a^p a^q = a^{p+q}$ 가 성립한다.

[2-2]

먼저 $a_1 = \sqrt{2}, a_{n+1} = \sqrt{2+a_n}$ 으로 정의된 수열이 단조증가하며 위로 유계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보이자.

$a_1 = \sqrt{2} < 2$ 이다. 이제 임의의 자연수 k 에 대하여 $a_k < 2$ 라고 가정하자.

이때 $a_{k+1} = \sqrt{2+a_k} < \sqrt{2+2} = 2$ 이므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a_n < 2$ 이다. 따라서 위 수열은 위로 유계이다. 또한 $a_n < 2$ 과 $a_{n+1} = \sqrt{2+a_n}$ 으로부터 $a_{n+1}^2 = 2 + a_n > a_n + a_n = 2a_n > a_n^2$ 이므로 위 수열은 단조증가이다.

위 수열은 단조증가이고 위로 유계이므로 제시문 [나]에 의하여 극한이 존재한다.

$x = \lim_{n \rightarrow \infty} a_n$ 이라 놓으면 $x > 0$ 이고, $a_{n+1} = \sqrt{2+a_n}$ 에서 $n \rightarrow \infty$ 의 극한을 취하면 $x = \sqrt{2+x}$ 즉 2차 방정식 $x^2 - x - 2 = 0$ 가 성립하고, $x > 0$ 이므로 $x = 2$ 를 얻는다. 따라서 위 수열이 수렴하는 극한값은 2이다.

[2-3]

양의 실수 x, y 의 무한소수 표기를 각각 $x = x_0 \cdot x_1 x_2 \cdots x_k \cdots$ 과 $y = y_0 \cdot y_1 y_2 \cdots y_k \cdots$ 라 하고, 자연수 n 에 대하여 유리수 p_n, q_n 를 $p_n = x_0 \cdot x_1 x_2 \cdots x_n$ 그리고 $q_n = y_0 \cdot y_1 y_2 \cdots y_n$ 라 정의하면 제시문 [다]에 의하여 $2^x = \lim_{n \rightarrow \infty} 2^{p_n}$, $2^y = \lim_{n \rightarrow \infty} 2^{q_n}$ 그리고 $2^{x+y} = \lim_{n \rightarrow \infty} 2^{p_n+q_n}$ 이다. 수렴하는 수열에서 극한의 성질과 유리수 지수에서의 지수법칙에 의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2^x 2^y = \lim_{n \rightarrow \infty} 2^{p_n} \lim_{n \rightarrow \infty} 2^{q_n} = \lim_{n \rightarrow \infty} 2^{p_n+q_n} = \lim_{n \rightarrow \infty} 2^{p_n+q_n} = 2^{x+y}$$

이제 $\log_2 3 = x$ 그리고 $\log_2 5 = y$ 라 놓으면 $2^x = 3, 2^y = 5$ 이고 x, y 는 양의 실수이므로

$15 = 3 \times 5 = 2^x 2^y = 2^{x+y}$ 가 성립한다. 따라서 $\log_2 3 + \log_2 5 = x + y = \log_2 15$ 이다.



V. Essay란 무엇인가?

의미 및 구성

chapter

05

1. 목표 및 주안점

- 서강대학교의 학생으로서 대학 교육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영어독해 및 쓰기 능력을 갖추었는지 측정한다.
- 서강대학교의 학생으로서 각 전공분야에서 요구되는 영어 Text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추었는지 측정한다.
- 서강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전공과 교양지식을 영어쓰기의 형태로 적절히 소통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있는지 측정한다.
- 서강대학교의 학생으로서 현실세계의 문제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할만한 기초소양을 습득할 수 있는 학문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측정한다.

2. 교육적 의미

- 국제화 시대에 부흥하여 대학생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학문적 과업을 수행하는 실증적 능력을 갖추기에 필요로 하는 영어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한다.
- 영어 Essay가 단순히 영어능력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유용한 교육수단이라는 교육철학에 근거한다.
-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지식인에게 필요로 하는 전문적 영어소통능력의 중요성을 전파하여 일상생활에서 읽기와 쓰기 등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영어 Essay의 구성

: 서강대의 영어 Essay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 A. 자유 Essay : 짧은 Prompt를 기초로 유연한 형태의 Essay
- B. 비교분석 Essay : 비교적 긴 Text를 근거로 비교분석하는 Essay

구분	문항 1	문항 2
배점	40%	60%
시간	1시간 30분	

1) 자유 Essay

● 구성

자유 Essay는 논리전개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보고자 한다. 이 Essay는 비교적 짧은 구문이나 Quotation을 주고 논지를 전개하는 형식을 띤다.

● 자유 Essay의 평가기준

- (1) 주어진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 (2) 얼마나 논리적인 글을 이끌어 냈는가?
- (3) 논리에 적절한 증거나 예를 제공하였는가?
- (4) 논지를 설득력있고 정확한 영어로 이끌어냈는가?

2) 비교분석 Essay

● 구성

비교분석 Essay는 서강대 수업에서 요구되는 영어 Text를 정확하고 적절히 이해하고 이를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비교분석 논술은 150-400자로 이루어진 지문 2-3개를 읽고 주어진 문제에 답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지문의 특징

비교분석 Essay의 특징은 여러 지문을 주고 이를 비교 분석하게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학문적인 지문 2개를 제시하고, 일상적인 예를 통해 논지를 끌어내도록 할 수도 있고, 일상적인 지문 2개를 제시하고 학문적인 지문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형태도 나타낼 수 있다.

● 비교분석의 평가기준

- (1) 주어진 지문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2) 주어진 지문을 근거로 하여 얼마나 깊은 논리적인 글로 이끌어 냈는가?
- (3) 논리에 적절한 증거나 예를 제공하였는가?
- (4) 논지를 설득력있고 정확한 영어로 이끌어냈는가?

Ⅵ. 모의 Essay로 실전에 대비해 보자.

2013학년도 모의 Essay 문제 및 해설

chapter

06

1. 모의 Essay 문제

[문항 1]

Question(40% 배점)

Read the following short passage, and write an essay explaining the last sentence of the passage. Be sure to include specific examples to illustrate your arguments.

Is science of any value? A power to do something is of value. Whether the result is a good thing or a bad thing depends on how it is used, but the power is a value. Once in Hawaii I was taken to see a Buddhist temple. In the temple a man said, "To every man is given the key to the gates of heaven. The same key opens the gates of hell." And so it is with science. In a way it is a key to the gates of heaven, and the same key opens the gates of hell, but we do not have any instructions as to which is which gate. All the major problems of the relations between society and science lie in this same area.

[문항 2]

Question(60% 배점)

Consider the finding reported in Passage 1. Explain how this finding helps you understand the phenomenon illustrated in Passage 2.

Passage ①

Two researchers conducted a study in which they trained two interviewers for six weeks in employment interviewing techniques. Then the two interviewers interviewed and rated 98 volunteers of various backgrounds. Each interview lasted 15-20 minutes, and all the interviews were captured on tape.

Then, the researchers edited the interview tapes down to 15 seconds. Each 15-second clip showed the interviewee entering the room, shaking hands with the interviewer, and sitting down. There was nothing more substantial than that.

Then, another group of people were invited to rate the interviews. This time, they were asked to rate the interviewees just on the 15-second handshake clip. Their opinions correlated strongly with those of the two trained interviewers who had the full interview to work from.

Passage ②

The world of classical music was until very recently the preserve of white men. Women, it was believed, simply could not play like men. They didn't have the strength, the attitude, or the resilience for certain kinds of pieces. Their lungs were less powerful. Their hands were smaller. That did not seem like a prejudice. It seemed like a fact, because when conductors and maestros held auditions, the men always seemed to sound better than the women.

No one paid much attention to how auditions were held, because it was an article of faith that one of the things that made a music expert a music expert was that he could listen to music played under any circumstances and gauge, instantly and objectively, the quality of the performance. Auditions for major orchestras were sometimes held in the conductor's dressing room, or in his hotel room if he was passing through town. Performers played for 5 minutes or 2 minutes or 10 minutes. What did it matter? Music was music.

But over the past few decades, the classical music world has undergone a revolution. Official audition committees were established. In some places, rules were put in place forbidding the judges from speaking among themselves during auditions. Screens were erected between the committee and the auditioner. The person auditioning was banned from clearing his or her throat or made any kind of identifiable sounds. As these new rules were put in place around the country, an extraordinary thing happened: orchestras began to hire women. In the past 30 years, since screens became common place, the number of women in the top U.S. orchestras has increased fivefold.

2. 해설

[문항 1]

위 문제에 대한 이상적인 답은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효용성과 부작용에 관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과학의 가치가 미치는 파급을 수험자 개인의 특수 상황보다는 사회전반에 걸쳐 일반화가 가능한 영역으로 끄집어 내어 논의를 전개하여야 한다. 단순히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식의 단편적인 의견개진의 수준에서 벗어나, 사안의 복잡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적절한 예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깊은 논리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문항 2]

이 문제는 Interview와 관련된 인간의 판단력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Classical Music계의 실제 Audition의 관행과 관련된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흔히 “편견에 사로잡혀 객관적인 평가를 못한다”라는 도덕적인 잣대로만으로 기술할 경우 답의 내용이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상적인 답안에서는 지문 1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적절히 검토하여 지문 2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들이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Interview와 관련된 전통적인 방법이 간과해온 문제점들을 보다 심도 깊게 끌어내어야 한다.



2013

논술 & 에세이
가이드북

부록 Appendix



1. 서강대 논술 이것이 궁금하다!

작년도 입시결과 분석에 기초한 Q&A

2. 논술 달인을 위한 10계명



1. 서강대 논술 이것이 궁금하다!

작년도 입시결과 분석에 기초한 Q&A



Q1 서강대학교 수시전형에서 논술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1 수시2차 일반 논술전형에서 반영요소는 우선선발과 일반선발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선발은 논술 70%, 학생부 30%가 반영되고, 일반선발은 논술 50%, 학생부 50%가 반영됩니다. 일반전형은 논술의 실질 반영비율이 높으므로 논술성적에 의해 합격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Q2 내신이 좋지 않으면 합격가능성이 없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대학교 전형의 특징은 각 전형별 주요 평가요소가 실제 합격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내신성적이 좋지 않아도 논술실력으로 극복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작년도 일반전형 기준으로 내신성적을 분석해 보면, 합격생의 내신 등급은 평균적으로 2.5~3등급 사이에 분포해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생 중 약 15%는 내신 등급이 4등급 이하에 위치한 학생임이 밝혀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내신의 불리함을 논술실력으로 이겨내어 서강대에 당당히 입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Q3 합격생들의 논술성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A3 논술채점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매기게 됩니다. 작년도 전체지원자의 평균성적은 3~4점 사이에 위치하는데 반해 합격생들의 논술성적은 우선선발 6.0(자연계열은 6.2)점, 일반선발 7.4(자연계열은 6.6)점 이상에 위치합니다. 다만, 한 문제라도 0점을 받으면 자동으로 과락 처리되므로 불필요한 낙서나 이모티콘을 답안지에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4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유리하나요?

A4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오류가 모범답안을 암기해서 논술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교수님들의 논술평가시 본격적인 채점에 앞서 우선 40~50명의 수험생에 대한 가채점을 통해 문제의 난이도 및 수험생의 답안유형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때 학원에서 배운 관박이 답안유형이 쉽게 눈에 띄게 되고 이 학생들에게는 평균이하의 성적을 주게 됩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답안에는 의외로 중소도시의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은 논술실력이 사교육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지요.

Q5 지원하려면 반드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A5 네 그렇습니다. 최저학력기준은 일반선발 기준으로 인문사회계열은 2등급 3개, 자연계열은 2등급 2개입니다. 우선선발의 경우 인문사회(언,수,외 백분위합이 288이상), 경제경영(언,수,외 백분위합이 292이상), 자연계열(수,탐 백분위합이 188이상)입니다. 우선선발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실질경쟁률이 낮으므로 합격가능성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Q6 작년도 지원인원 및 실질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A6 작년도 수시2차 일반전형은 560명 모집에 39,720명이 지원하여 평균 71: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서 접수 이후 사정이 있어서 응시를 못하거나 중도포기하는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입시결과를 분석해보면 결시자, 최저학력기준 미달자, 과락자가 전체지원자 중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경쟁률은 일반선발은 약 23:1로, 우선선발은 약 8:1로 줄어듭니다.



2. 논술 달인을 위한 10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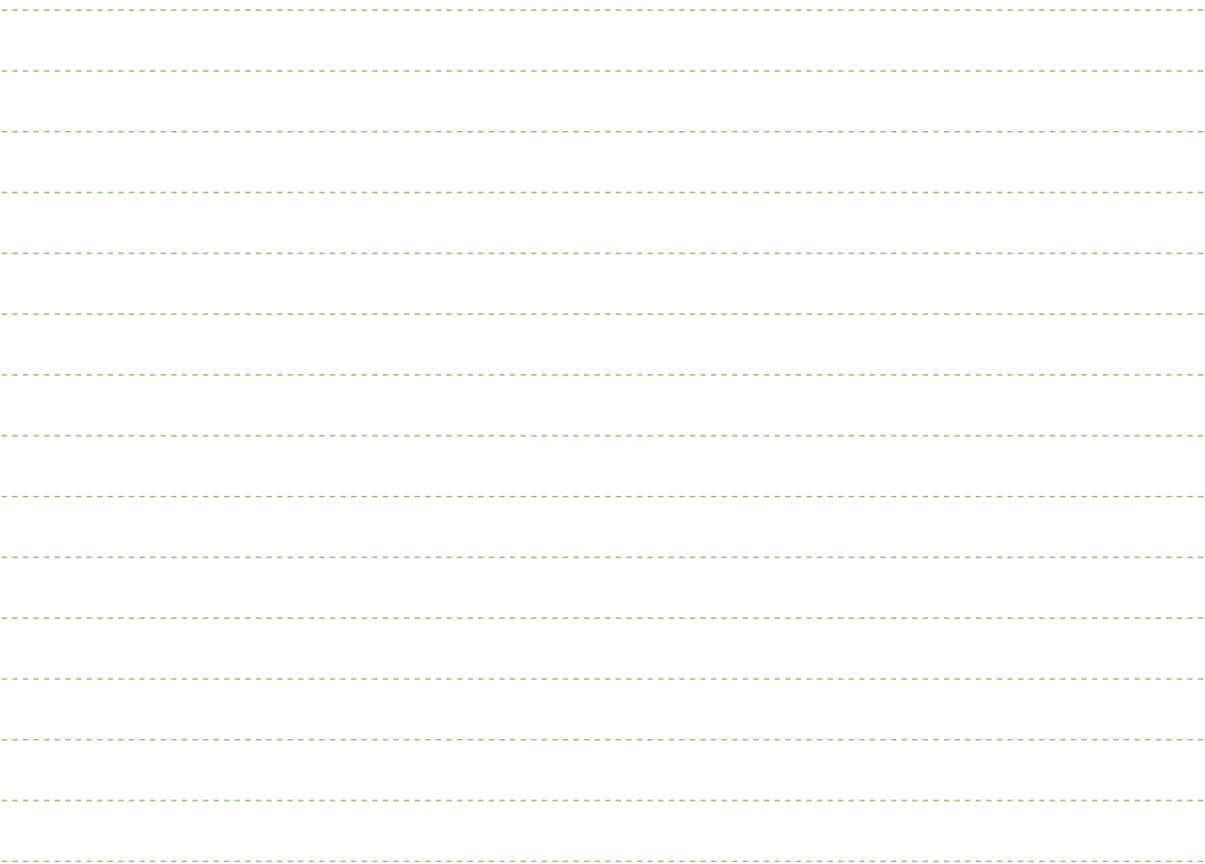
● Advice

- 1 논제와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다.
- 2 정확히 읽고 효율적으로 요약한다.
- 3 제시문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제시문을 그렇게 구성하고 배치한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
- 4 논제 해결에 필요한 논거를 우선 제시문에서 적절히 파악하고, 자신의 평소 지식과 정보 및 경험에서 축적한 논거들과 효율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발견적 사유를 추론한다.
- 5 자신의 논지와 주장이 합당한 논거에 근거하고 있는지, 반론에 취약하지 않은지 반성한다.
- 6 핵심 아이디어와 키워드를 정리한다.
- 7 효율적인 개요를 작성한다.
(가능하면 적정 분량까지 잘 계산한다.)
- 8 제시문보다 문제를 먼저 읽는다.(문제를 읽고 난후 문제해결을 위한 제시문을 찾는다.)
- 9 제시문에 그래프나 도표가 나온 경우 철저히 이해한다.
- 10 글(단락, 문장)의 구성력(통일성, 일관성, 완결성)을 제고하고 어문규정 및 분량을 준수한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2013 논술&에세이 가이드북

발행일 2012년 5월 1일

발행인 서강대학교 입학처장 이옥연

발행처 서강대학교 입학처 입학팀

121-74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입학처 입학팀

Tel. 02-705-8621 Fax. 02-705-8620

<http://admission.sogang.ac.kr>

<본 논술&에세이 가이드북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서강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허가 없이 무단 복제, 출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 제작 (주)꽃피는청춘 02.3142.7373

*Be as proud of Sogang
as Sogang is proud of you*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어라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아루페관 5층 입학처
입학팀 Tel. 02)705-8621 Fax. 02)705-8620
입학사정관실 Tel. 02)705-7908 Fax. 02)705-7910
<http://admission.sogang.ac.kr>



iOS



Android